

소방공무원들에 감사의 뜻 전하고 싶어 후원

기아차 광주공장, 특수장학회에 1000만원 전달

광주소방공무원 자녀 교육 위해 사용
2012년부터 총 1억4000만원 장학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이 광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후원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최근 광주서부소방서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재)특수장학회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후원금은 특수장학회를 통해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기



기아차 광주공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후원 행사를 열고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재)특수장학회에 총 1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훈)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광주순환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해 총 1억20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학교급식 개선 등 건강·복지 향상 합의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가 수석교사제 개선과 교원 업무 경감, 교원 근무환경 개선, 학교급식 개선, 교원 건강·복지 향상 등에 합의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광주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열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대광새마을금고, 한부모·독거노인 등에 이불 300채 전달



대광새마을금고(이사장 안근원)가 최근 광주시 동구청 접견실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기부물품은 이불 300채(1000만원 상당)로, 동구를 통해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광새마을금고 제공)

전남공고 재학생 4명, 한국철도공사 합격

전남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올해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고졸공채 분야) 시험에서 차량·토목·전기통신직 등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21일 전남공고에 따르면 산업설비검사와 김시훈(차량직 합격)·토목과 정형진(토목직 합격)·건축디자인과 장성현(토목직 합격)·전기과 김창요(전기통신직 합격) 등 4명의 학생이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1학년 후반부터 꾸준히 시험 준비를 했다.

이들은 학교장 추천과 서류 전형,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 능력), 실기 시험(토목 분야), 면접과 인성 검사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

이다. 정형진 전남공고 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도 맞춤형 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보다 나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우정청, 동전모이기 성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조해근·사진)이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희망우체국 동전모이기 캠페인 모금액을 전달했다. 우정청은 광주·전남 모든 우체국 창구에 사랑의 저금통을 비치하고, 방문객·직원 등의 기부금을 모아 총 14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성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굿네이버스에 전달됐으며,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해근 전남지방우정청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광주·전남우체국이 소외계층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202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1부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40 팔도방송 스페셜	00 안행여사 -조선비밀수사단(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축구야구말구(재)	00 12 MBC 뉴스 20 백파더 편집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션다인사 50 안영우 리얼(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뽀뽀뽀 친구친구 50 특집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202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2부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소재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이웃집 찰스(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팻 비타딘(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언어 순화 특집 중학생들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안행여사-조선비밀수사단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성탄 기획 육담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펜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스페셜	15 불타는 청춘
[12]	10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영화 동네사람들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다큐 스필버그의 질문 우리는 왜 중요하는가(재)	50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예코하우스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출동! 슈퍼윙스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독도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잭	13:00 EBS 다크프라임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티시테시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아시아 피싱로드-침착, 날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21:30 한국기행 〈나의 전일일기 2부 그대가 남겨준 선물〉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크프라임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22:45 건축탐구 - 집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맹 유치원(재)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음 11월 8일 己亥) ☎ 010-9790-8237

36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48년생 불합리한 요소가 보인다면 제거해야 한다. 60년생 목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72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84년생 강한 확신으로 과단성 있게 추진하자. 96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행운의 숫자 : 24, 81

37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49년생 격동의 현장에서 자생력이 드러날 것이다. 61년생 걱정하지 말고 흐름대로 임하라. 73년생 뿌린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게 되리라. 85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97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행운의 숫자 : 20, 92

38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50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62년생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다. 74년생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 할 것이다. 86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를 수이니라. 98년생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행운의 숫자 : 16, 53

39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51년생 상훈기에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63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75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87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99년생 다양한 방법의 개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31, 55

40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52년생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64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76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88년생 경험을 되살린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00년생 동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8, 97

41년생 송두리째 버리느냐 끌어안고 함께 가느냐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53년생 무조건 믿어 붙이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65년생 서행하면 득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이로다. 77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89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01년생 상황이 경색 되기 전에 응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44, 54

42년생 패도만만하 후에 명확하게 처리 해야만 한다. 54년생 빨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78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90년생 치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02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실행적이다. 행운의 숫자 : 06, 63

31년생 지속한다면 승산은 충분하 옳으니라. 43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보인다. 55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67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79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91년생 애매하다면 흥하니 흑백은 확실하게 가리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61

32년생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곤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44년생 두루 살펴가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6년생 남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68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80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92년생 속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2, 70

33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으니라. 45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69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접이 될 수 있다. 81년생 시종일관 계속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라. 93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36, 71

34년생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감내해야 한다. 46년생 전무후무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잡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58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70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 해야겠다. 82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실속 있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94년생 승선 수법 한다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5, 94

35년생 정곡을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 될 뿐이다. 47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59년생 괜히 나섰다 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71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 83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95년생 정반대의 판도로 비화 된다. 행운의 숫자 : 28, 98